

장내 유해균 억제로 육계 생산성 향상에 탁월! 아비플러스P(Aviplus®P) (주)유진바이오

(주)유진바이오(대표이사 조승열)는 지난 10월 23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국내 축산 관계자 80여명을 초청하여 '장내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안전 축산물 생산(Intestinal Integrity and Immune response)'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축의 장건강과 면역활성화 연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및 축산부산물 생산과 농장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수익성 창출방안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지아대학 수의학과 교수인 Dr.Charles L. Hofacre의 'Intestinal health and food safety concerns',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Dr.Chad H. Stahl의 'Early life stressors on long-term intestinal health', 베타그로 아시아 기술이사 Ronald FongCheng Co의 'Solution of production efficiency and performance'에 대한 주제발표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조지아대학 수의학과 Charles L. Hofacre 교수는 미국 동남부의 5대 육계업체 이슈인



① 콕시듐증(Coccidiosis) ② 괴사성 장염(Necrotic Enteritis) ③ 전염성 기관지염(Infectious Bronchitis) ④ 도계처리과정 중의 세균 오염(Infectious Process) ⑤ 감보로병(Infectious Bursal Disease)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전히 콕시듐증과 괴사성 장염이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도계장에서 도계과정을 통한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터 오염 실태와 더불어 건강한 장 관련 육계의 장내 정상 미생물총과 클로스트리듐, 콕시듐, 살모넬라, 캄필로박터의 상관관계 및 밸런스에 대한 연구 데이터와 더불어 정상 미생물총 유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식품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터 컨트롤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또한 아비플러스(Aviplus®)를 이용한 육계의 생산성 향상 자료도 함께 소개되었다.

한편 베타그로 아시아의 Ronald FongCheng Co 기술이사는 베타그로 회사소개와 함께 마이크로인캡슐레이션 기술 및 아비플러스(Aviplus®) 제품에 대해 소개했다.

신개념 양계전용 사료 첨가제, 아비플러스P

이번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에 사용된 마이크로캡슐 유기산 + 에센셜 오일 복합제인 아비플러스는 양계는 물론 양돈에서는 유일하게 EFSA(유럽 식품안전청)에 의해 안전성과 효과를 공인받은 제제이다.

아비플러스P는 특히 받은 Microencapsulation(마이크로캡슐 코팅) 기



아비플러스P 제품

법으로 제조되어 유효성분들이 소장 상부부터 장내 말단부까지 서서히 분비되는 Slow Release 기능과 유기산과 에센셜 오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 유지시킬 수 있다.

또한 아비플러스P는 기존의 성장 촉진용 항생제 대체제(AGP)보다 뛰어난 항균효과와 면역력 향상 효과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대학들로부터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아비플러스P는 최근 소비자들의 무항생제 축산물 선호 경향과 축산물 및 부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항생제 대체제로서 향후 양계, 양돈 사료 개발 시 사람, 동물, 환경 모두에게 안전한 친환경적인 기능성 사료첨가제로 사용가치가 높다. 🐔

〈Aviplus®P의 효능·효과〉

- 장내 유해균 억제
- 성장촉진
- 괴사성장염 예방
- 사료효율 개선
- 연변 방지

-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